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68 호

順天金氏宗報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2011. 9. 29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인:김형엽/편집인:김은한/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신화SILK빌딩 2층/전화(02)400-2501/FAX(02)400-2505

종친 화합을 제일 목표로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仲秋佳節을 맞이하여 종친 모두의 가정에 萬福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앙종친회 회장을 맡은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으나 무탈하게 순항할 수 있었던 건 임원 및 종친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덕분이라 사료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중앙종친회의 여러 당면 과제가 산재해 있으나 임원 및 종친여러분이 협심단결하면 능히 헤쳐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친 여러분!

앞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천김씨의 당면 과제 중 제일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동안을 돌이켜 볼 때 특별한 업적은 없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젊은 종친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화합을 제일 목표로 하여 종친회관 건립 기금 조성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종친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음 10월1일)은 시조부군 추향제이오니 종친 여러분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후원금 및 회관건립 기금 계좌안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9개 부서를 두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전국 파종회 및 지파회 위주로 종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중앙종친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당면 과제 중 중앙종친회 회관건립과 동원제 시조부군께서 현재 전라남도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가락당 및 관리사택을 이전 정비 하여야만 문화재 관리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만원기부 하기 운동과 또한 회관건립 현성금 중 1구좌당 50만원 이상은 현성비를 건립 할 것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국 순천김씨 종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중앙종친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심, 단결할 때입니다.

종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종친회 총무부장 김범재 배상

농협중앙회, 355-0008-1852-4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공 고

순천김씨중앙종친회 제 22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

회칙제 15조에 의거 2011년 제 22기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순천김씨중앙종친회

會長 金行燁

一. 일시 : 2011년 10월 26일

二. 장소 : 전남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동원재

▼연락처:중앙종친회

▼전화:02-400-2501~2

三. 참석범위

(一) 중앙종친회 전 임원 및 종원

四. 의안

(가) 업무보고

(나) 제 22 수입지출결산보고

(다) 제 23기 예산안 심의

(라) 기타 토의사항

五. 다음날 27일 시조추향제입니다.

순천김씨 상계고찰(順天金氏上系考察)

I. 서론

가문의 上系를 살펴볼 때 역사적인 진실은 참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상계를 고증함에 있어서 正史에 밝게 나타나 있으면 좋으려만 正史의 기록 공간은 크고 작은 제한 요소가 있어서 역사적 사건 모두를 기록할 수 없었다.

우리 가문의 상계는 대부분이 고려 왕조에 해당되며 이미 2004년에 전국 종친제위의 열망에 의해 "순천김씨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모조리 다 내어놓게 하였더니, 참으로 귀중한 옛 家乘이 나왔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고증을 통해 상계와 계대를 정립하여 "갑신보"를 발간 배포한 바 있다.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정립한 상계와 계대를 폄훼(貶毀)하고 일부 일가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주장이 正論이라 주장하고 있기에 "순천김씨상계고찰"이라 題하여 편견없이 가능한 많은 자료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II. 상계관련 문헌의 검토

1. 문헌에 나타난 順天金氏 上系 자료

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1530년(중종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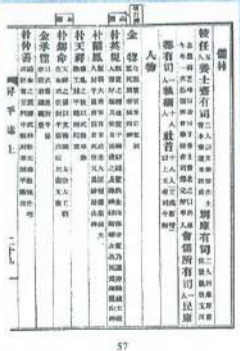
朝鮮은 건국 후 통치상의 필요에서 地理志 편찬의 중요성을 통감한 世宗의 명에 따라 맹사성, 신색 등이 1432년(세종14) 新撰八道地理志를 찬진(撰進)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수차 개찬 또는 증보하여 1530년 中宗의 명에 의해 이행, 윤은보, 신공제, 흥언필, 이사균 등이 펴낸 官撰地理書이다.

人物 後百濟

金摠 : 仕甄萱官至引駕別監死爲府城隍神

김총 : 견훤에 출사하여 관이 인가별감에 이르고 사후 부의 성황신이 되었다.

2) 승평지(昇平志) : 1618년(光海10년)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1618년(光海10년) 순천 부사로 재직할 때 엮은 順天邑誌이며 권기(權紀)의 永嘉志 등과 함께 韓國史上 가장 일찍이 쓰여진 地方志 가운데 하나다.

人物 後百濟

金摠 : 仕甄萱 官至引駕別監 死爲府城隍神

김총: 견훤을 섬겨 벼슬이 인가별감에 이르렀고 죽어서 순천의 성황신이 되었다.

3) 계림김씨동원록(鷄林金氏同源錄) : 1624년(仁祖2년)



1624년(仁祖2년 天啓甲子) 金鼎禹의 서문 이 책 머리에 있으며 1957년에 석관본으로 간사되었다.

저자 : 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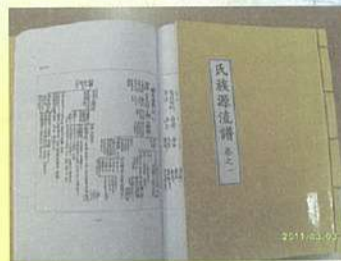
발행사항 : [刊寫者未詳], 天啓甲子[1624]

소장기관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鷄林金氏分貫錄〉 順天金氏

-則弓裔引駕摠後, -則稟言玄孫位境後, -則台泳後

4) 씨족원류(氏族源流) : 1681년(肅宗7年)



1681년(肅宗7年)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이 편찬한 統合譜이며 현재 조종운의 14세손 趙鏞珍씨가 소장하고 있다.

趙從耘의 본관은 풍양이며 이이·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이조참의에 추증된 趙滌의 아들이며 그의 숙부 趙涑이 남긴 思先錄이 氏族源流를 저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氏族源流는 당시 조선사회의 540여문종의 족보, 가승, 계보 기록을 필사하여 편찬하였으며 대다수 성씨들이 족보를 간행하기 이전에 완성되어, 이후 여러 성씨가 조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5) 신라김씨동원록(新羅金氏同源錄) : 1764년(英祖40年)



저자 : 金世永

출판년 : 1764

序: 聖上即位之四十年(1764) 孟夏金海君後孫金世永

跋: 同年(1762) 夏末順天君後孫崔昌準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順天金氏

隋城君 稟言의 7世孫 之恭 後

6) 순천김씨갑신보(順天金氏甲申譜) : 1764년(英祖40年)



順天金氏의 족보는 1764년(英祖40年 甲申年)에 初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甲申譜라 한다.

- 始祖이신 引駕公 諱 摠이하 몇代는 그 代數와 諱字를 고증할 수 없어 高麗末에 典客寺令을 歷任한 諱 允仁을 中始祖 一世로 하였다.

- 節齋公派는 그 派生된 系代를 확인할 수 없어 別錄으로 하였다.

- 載寧派의 孝會이하는 舊譜에 없었으나 司藝公 仲孫의 紅牌와 沂의 戶籍을 확인하고 錄籍하였다.

7) 문헌비고(文獻備考) : 1770년(英祖46년)



조선 영조46년에 홍봉한 등이 왕명으로 만들었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에 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으로 만들어 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順天金氏始祖金摠

本新羅宗姓 弓裔時爲引駕別監 移籍順天 封平陽君 死爲本府城隍神

신라 황실의 후예이며 궁예에 출사하여 인가별감을 지내시고 평양군에 봉해졌으며 순천으로 분적하여 사후 부의 성황신이 되었다.

8) 강남악부(江南樂府) : 1784년(정조 8年)

1784년(정조 8) 趙顯範이 海東樂府의 체를 모방하여 전라남도 順天에서 생긴 특기할 만한 사적을 모은 책.

聖海 趙顯範이 고려시대부터 조선 英宗代까지의 江南(全羅南道 順天邑)을 중심으로 한 忠孝義烈의 경모할 만한 인물 및



행적, 故事와 風土俗尙의 詠歌할 만한 일, 기타 奇事異蹟으로 傳頌할 만한 일 등을 엮은 책이다. 각 詩에는 일일이 시의 내용, 고사 및 역사를 풀었으며, 또한 人名, 地名 등에는 주해를 하였다.

高麗 : 金別駕, 昇平志曰 後百濟 金摠 仕甄萱 官至引駕別監 死爲府城隍神.....英宗朝 “金別駕英雄人 生不得君平陽 死則爲城隍神.....至今享祠秋與春”(夾註 : 祠在進禮山 自官遺儒生 椿秋致祭)

“김별가[김충]는 영웅적 인물이었다오. 살아서 평양[순천]의 군장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죽어서는 성황신이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도록 사당[성황사]에서 봄과 가을이면 제사를 드린다네”(협주 : 사당은 진례산에 있다. 관아에서 유생을 보내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9) 신라김씨선원록(新羅金氏璿源錄) : 1887년(고종 24년)



崇禎二百四十四年 聖上二十四年丁亥陽月下泫 博文局改刊 1887년 조선 왕실의 인쇄소격인 博文局에서 발행한 책이며 이 책은 동성동본을 가리기 위해 조선정부가 발행한 책으로 이 책 분량은 20장(40쪽)이며 판은 목활자본 新羅金氏分貫錄이 기록되어있다.

新羅金氏 23世

弓裔 : 眞聖王 5年 反擄北 自稱 太奉王 都鐵原 爲麗祖所滅 基後 分爲順天金氏 分爲光州李氏 神武王 庶子

- 신라김씨 23세이며 신무왕서자로 출생하여 태봉왕에 올라 도읍을 철원에 정하였으며 고려조에의해 소멸된 후 순천김씨와 광주이씨로 분적하였다.”궁예(弓裔)의 장손(長孫)이었다”

2. 순천김씨 가승 자료(順天金氏 家乘 資料)

가. 순천김씨 자제2세지21세(順天金氏 自第二世至第二十一世) 概要

우리 문중의 家牒에 의하면 始祖以後 2世되는 金裕는 進禮郡을 襲守하고 逆軍을 토벌했다 하였고 三世 金慶衍은 新羅가 高麗에 降伏하대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켜 入山隱居하니 以後 4, 5代가 그곳 白雲山에서 一生을 지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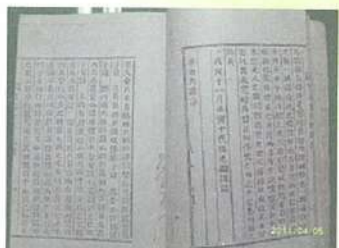
고려 中期에 山外로 나오니 官에 入仕하기도 하여 13世 金希哲은 吏部尙書로 賢良들을 데리고 王室을 호위하다 逆臣 李資謙의 무리에 의해 殉節하였고 14世 金平은 妻父 韓彥國의 연고로 黜職되어 全羅道 昇平의 白雲山에 隱居하였으며, 敍用되어 樞密院使에 이르렀으나 15世 金孝德은 武臣들에게 迷惑되는 王을 諫하다 父子가 함께 殉死하는 등 武臣政權期는 受難의 時期였다고 하였다. 고려 末葉 17·18·19世들의 翰林學士, 典客寺令 또는 密直司事 大護軍등 官職은 이어졌었으나 가문의 문적이 피화와 병화를 겪으며 소실되어 다른 事蹟은 전하지 않는다.

나. 고가승(古家乘) 자료

1) 순천김씨서파보(順天金氏西派譜) : 1901년(光武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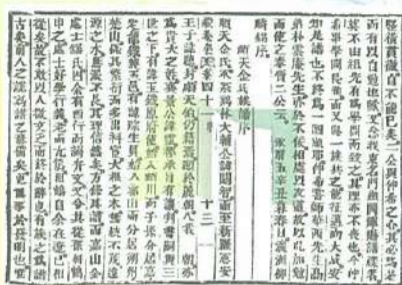
- 1. 순천김씨서파보서 : 병자(1936)4월임 송안계효관근식
- 2. 임진과보구서 : 임진(1832) 모춘상한불초후 손창근근서
- 3. 후보서 : 무인(1878)11월임 인10대손광윤근지



4. 신축(1901)대보서

順天金氏. 本系鷄林大輔公諱闕智. 而至新羅憲安王子諱弓裔 泰封王後從佛家子諱青光 亦從佛家子諱聰. 封順天伯.

2) 순천김씨족보서(順天金氏族譜序) : 1901년(光武5년)



高興人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1901년에 順天金氏西派譜에 서문이며 毅菴文集에 실려있다.

順天金氏族譜序

順天金氏. 本系鷄林大輔公諱闕智. 而至新羅憲安王子諱聰. 封順天伯. 仍籍焉. 顯於

麗朝. 入我朝. 亦爲貴大之姓. 襄景公諱.

III.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1. 상계실전의 발단

우리 金門의 초보인 감신보를 편찬할때에 草家 휘 百鍊公이 제시한 시조 이후 중시조인 典客寺令公 諱 允仁祖까지 18세의 대수와 그 휘자를 기록하지 않고 譜聽의 유사로 참여하였던 菊恣 휘 弼衡公의 주장을 받아드려 累世不傳이라 기록하였음이 상계실전의 발단이 되었다.

2. 상계의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정사에 나타나지 않은 상계의 진실은 참으로 파악하기 어렵기에 후손이 조상의 일을 왈가왈부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다만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올바른 고증 자료를 종문에 제시하여 중지를 모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조상의 휘함을 논쟁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3. 가문의 상계를 후손이 논할 수 있는가?

선대 조상이 가문의 피화와 병화를 겪으며 일부 왕조에 벼슬하지 않고 은둔하여 正史 기록에 없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조상의 계대와 휘함을 비워놓자 함은 어떠한 논리를 주장한들 올바른 일이 아니다.

IV. 결 론

우리 순천김씨의 初譜인 감신보 간행시 동분서주 노력하신 국창공의 위업은 높여 전하여야 할 일이나, 국창공의 유고는 밝게 헤아려 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창공의 유고를 맹신하여 일부 종원들을 현혹하여 정론이라 주장함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우리 김문의 상계 중 일부는 묘와 배위의 기록이 유감스럽게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피화와 병화를 겪으며 낙향 은둔하여 정사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은 우리 후손들이 심기일전 노력하여 바르게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를 빌미로 비생산적인 어리석은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할 것이다.

역사 인식을 폭 넓게 하지 못하고 문중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 깊이 있게 고민함으로써 우리 문중 전체 종원들이 화합과 단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2011年 9月 26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務部長 석담 김 한희

아스텍, 마야, 잉카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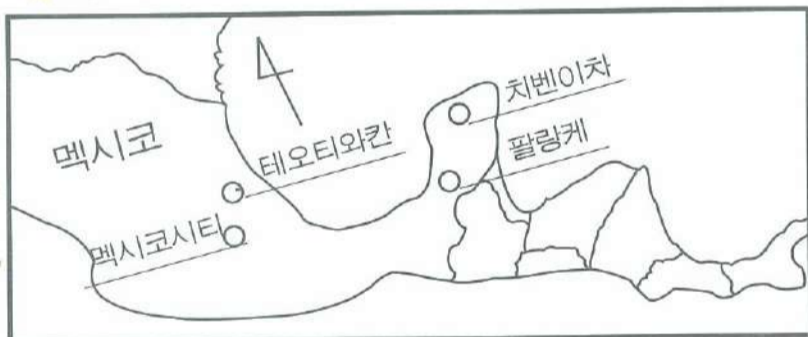
그 옛날 몽고계 한갈래로 우리와의 혈연적 연관이 있을지 모르는 한 종족이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 이룩한 아스텍, 마야, 잉카문화에 관심이 있어 이희수(李熙秀) 교수의 '세계문화 기행'을 읽고 이 부분 내용을 간추려서 I. 아스텍문화, II. 마야문화, III. 잉카문화 등 세편으로 나누어 적어보기로 한다.

I. 아스텍문화

1. 멕시코시티

아스텍 문화를 꽃 피웠던 해발 2300m 고원의 멕시코시티는 그 옛날 아스텍인들의 도시 국가가 자리했던 곳으로 그들의 훌륭한 천문학과 건축술 등의 문화를 목격했던 유럽인들은 모든 유적과 자료들을 말살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그 곳 아스텍 왕궁터에는 식민지 총독관저 (오늘날에는 대통령 관저)가 세워졌고 그 밖의 유적지에는 대성당 또는 관청 청사 등이 세워져서 아스텍 축조물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1521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의 만행은 왕은 물론 주민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남아있던 구조물들을 파괴하는 등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다고 한다.



▲ 아스텍칼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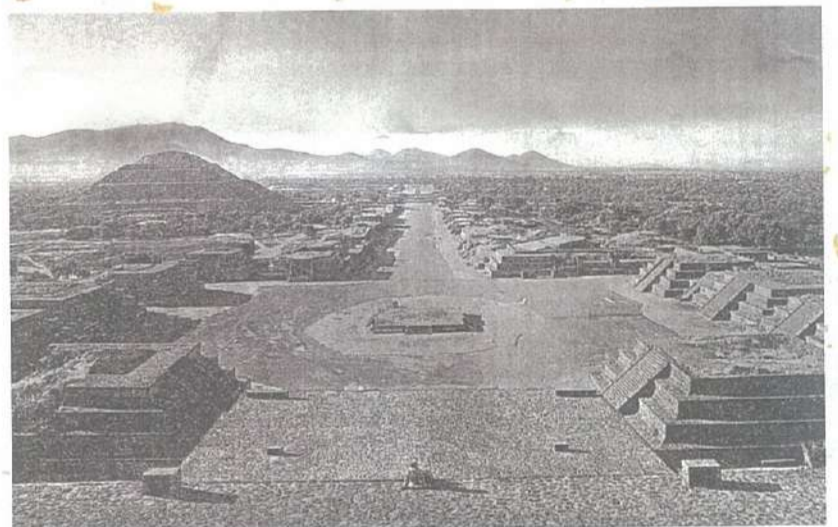
다행이라고 할까 인류학 박물관이 있어 당시의 유물 일부나마 전시되어 있고 팔랑케의 피라미드 신전에서 발굴된 비취장식의 가면과 인신(人身)을 제물로 받혔던 상황이 전시되

어 있어 그들 문화를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한다. 특히 아스텍 문화의 우수성은 1970년 '아스텍 칼린더'라 불리는 석판(石板)이 발굴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지름이 3.6m에 무게가 24톤이나 되는 석판으로 달력이 아니라 내세(來世)의 천재지변 또는 농경재배법 그리고 인신을 제물로 받혀야 하는 그들의 종교관 등이 문자와 부호로 부조(浮彫)되어 있어 그들의 우주관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위와 같이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하였음은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늘에 가까이 하고자 함이었으리라.

2. 테오티와칸

한편 멕시코시티의 북쪽에 자리한 테오티와칸은 또 하나의 도시국가 유적지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시로 후일에 발견되어 원형대로 남아 있다. 원편 산 같은 것은 태양의 피라미드 신전으로 한변이 225m에 높이가 65m나 되는 거대한 축조건물들이다.

그리고 비스듬이 맞은 편에 같은 규모의 달의 신전이 있는데 이 둘 신전 내부에는 다른 피라미드 구조물이 중첩되어 축조되어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중남미 신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깃털이난 뱀의 형상을 한 이 신은 불과 농경의 신으로 풍요와 낫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 밖에 이 많은 구조물들의 기능은 아직도 알 수 없으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테오티와칸

이 도시는 서기 350~650년 사이에 번영하였었다 하니 그 시기에 이들 구조물이 축조되었을 터인데 각개의 기능은 알 수 없으니 아쉬운 일이고 또한 7세기경에 갑자기 그 문명이 역사 밖으로 사라졌다 하니 어찌하여 었을까?

유럽과도 아시아도 오랫동안 단절되어 중남미 특유의 문화를 일구어낸 이들 문화에 대한 신비와 의혹이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곳의 신화는 마야와 잉카로 전해져 테오티와칸의 우주관과 문화 형태는 중남미 전역으로 퍼져 이스텍, 마야, 잉카 사이의 일정한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마야문화

팔랑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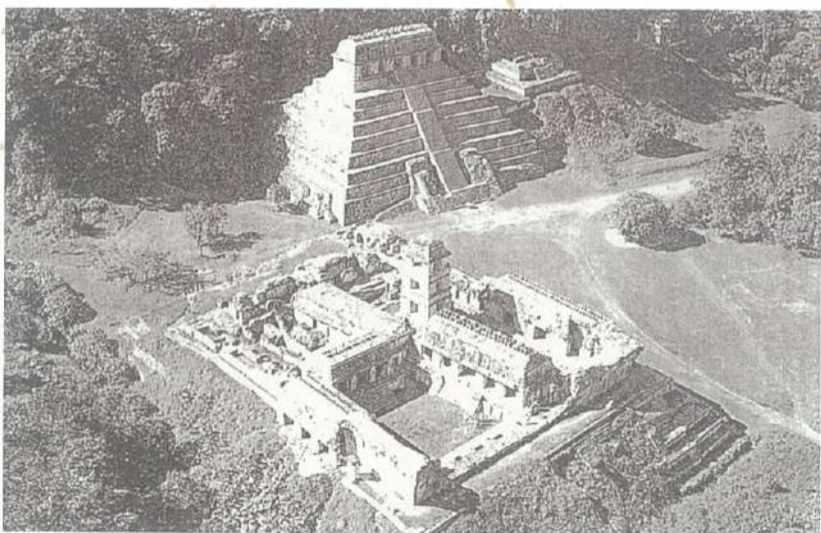
마야문명은 중미(中美)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르도 등 유카탄반도의 정글지대의 20만km²에 이르는 지역이 마야문명 권이었다고 한다.

마야의 기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기 300년경에 페렘지방에 강대한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때부터 987년까지를 마야고전기라 하는데 마야 유적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의 작품들이라 한다. 그런데 10세기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니 어찌하여 그랬을까?

마야문명이 중심지인 신전(神殿)도시 팔랑케로 가는 중간의 빌라에스모사시에 있는 박물관을 겸한 마야문명 연구소에는 기원전 1200년부터 서기 400년 까지의 유물들이 기능별로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 곳에 전시된 조각상등 소품과 마야도기(陶器), 스투코가면, 많은 돌비석, 돌기둥, 벽화모사품 등 엄청난 양의 현란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놀라게 했다고 한다. 특히 얼굴에 채색된 아이를 신께 바치는 조각품의 예술성과 사실성은 인상적이었다 한다.

마야문명의 유적지는 대부분 정글 속에 있고 팔랑케도 습도 높은 정글 한 가운데 있는데 멕시코의 가장 훌륭한 유적지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고 한다. 지상의 피라미드와 지하의 분묘 그리고 천문관측소 등 팔랑케 건축물의 특징 때문에 우주인도래지라는 설까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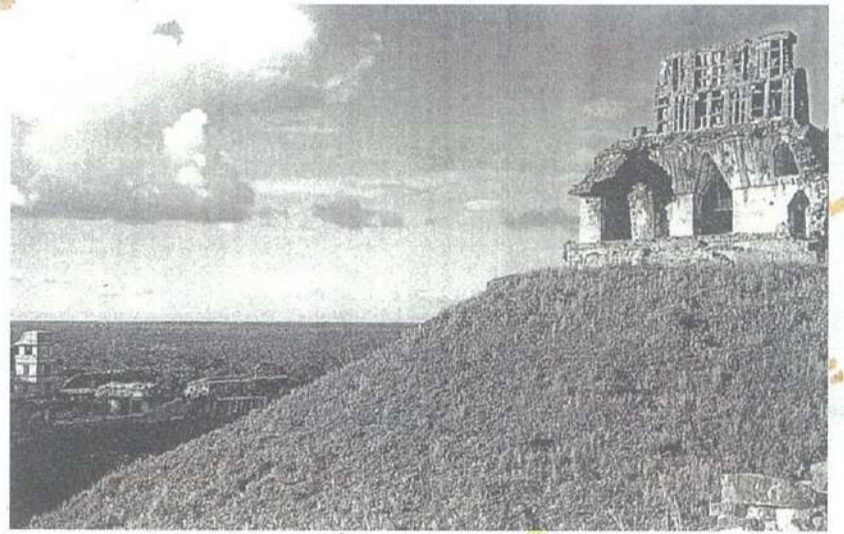
신전 중심지에는 비명(碑銘)의 신전, 십자가신전, 태양의신전 등으로 불리는 거대한 신전군이 있는데 그 거대한 피라미드 궁전의 규모가 놀랍다고 하며 왕이 살았던 왕궁은 92mx73m 규모로 4곳의 정원이 깔려 있으며 남서쪽에는 석가탑을 닮은 4층석탑이 있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천문관측소라 한다.



▲ 비명의 신전과 왕궁

비명의 신전은 22m의 높이로 천장이 마야식 아치로 되어있고 내부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판에는 마야 글자가 뿔뿔이 새겨져 있어 비명의 신전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신전 내부에는 왕의 묘가 있는데 높이가 7m나 되는 커다란 묘실에는 무게가 20톤이나 되는 석관(石棺)이 있고 그 뚜껑에는 인간과 신, 각종 식물과 문자가 부조(浮彫)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석관 안에는 파갈왕의 것으로 보이는 가면과 은통 비취로 장식한 미라(mirre)가 발견되어 마야문

화의 화려한 진수를 현대사회에 선을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 신전은 높은 고지 정상에 그 거대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마리의 뱀이 십자가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된 구조물이 있어 십자가 신전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 십자가 신전

위대한 문명도 알 수 없는 원인과 내부적 쇠퇴 그리고 스페인의 침략과 함께 소멸되고 말았다. 스페인의 원정대장 페르난도 코르테스가 1517년 유카탄 반도에 침입하여 본격적인 정복과 약탈이 뒤따랐지만 누구도 마야문명의 실체를 기록해 놓지 못했다고 한다. 1549년 유카탄 반도에 들어간 디에고란 다 주교는 중세적 교회의 기준으로 엄청난 양의 마야문화재를 광적으로 파괴했고 인디오들을 잔혹하게 심판하여 살육했다고 한다. 다만 자기의 기준에 합당한 자료들을 모아 1566년 한권의 책으로 만든 '유카탄에 대한 보고'가 있어 서구인들의 마야문명 연구의 지침서가 되고 있을 뿐 우리에게 마야의 진실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김명재 씀)

原稿 募集 要望

順天 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募集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들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는 집성촌 소개
7.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宗務部長 白



松農公 휘 承璿

공의 휘는 承璿 지는 應奎 호는 松農이다. 默齋公 世宗조에 생원으로 계시다 등제하여 沃川郡守에 제수되셨으며 강직하고 청렴하였으며 백성편에 정사를 펴시어 백성들을 편하게 하시니 칭송이 끈이지 않았었다고 전한다.

뜻밖에 端宗조에 들어 간당(奸黨)들에게 천지가 분노할 참화를 당하시어 벼슬을 버리시고 소주산(燒主山)으로 들어가시어 잠적하셨다. 선임들의 기록에 의하여 산속에서 눈물로 지내시며 검술(劍術)로 울화를 달래시기도 하고 초목을 부여잡고 울부짖기도 하셨다 한다. 그러하니 침식(寢食)인들 온전하셨겠는가.

근처에 宗親이신 회의군(和義君) 영(瓔)의 적소(謫所)¹가 있어 함께 마음의 고통을 나누기도 端宗임금의 복역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천운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그전 王의 신하로서 생을 마치겠다”고 하니 의화군 말이 “말 마저도 충성스러우니 그 마음을 알겠도다”고 하였다고 전한다. 의화군 역시 위 간당들에 의해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 후 端宗임금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공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통곡 또 통곡하며 북향사배(北向四拜)하시고 돌아가셨다하니 아! 슬프도다. 그 지방 府使 李弼漢이 그 소식 듣고 종사관 朴海壽를 보내어 부의를 하고 위문하기를 “운세 척박하여 그 命을 다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채 생을 마치니 그 불타는 충성심 사육신(死六臣)과 같도다”라고 하였다 한다. 英宗조 丙寅년에 공의 높은 절행(節行)으로 복관(復官)은 되셨으나 사림(士林)의 공론은 정려(旌閭)의 은전이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 공께선 천품이 곧고 정직하시며 忠孝의 가문에 물드시어 나라만 아시고 당신은 플라 성인(成仁)을 실천하시고 의리 깊으시어 난신(亂臣)들의 귀감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1. 謫所 ... 귀양살이 하는 곳.

방손 明在

●●● 종친회 이모저모 ●●●

「절재선생실기」 발행

선조들의 높은 훈공과 덕업을 흠모하며 현양함은 후손들의 도리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회에서는 이번에 절재(節齋)할아버님의 실기를 조선왕조실록의 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선현들의 논술을 주로 한 구(舊)실기를 합본하여 “절재선생실기”라 제하여 국역본(國譯本)으로 발간하게 되었음을 이에 알려드립니다.

겸하여 말씀드리자면 왕조실록중에 공에 관한 내용이 1000여건에 이르고 그후 누조(屢朝)의 조정에서도 공의 경륜사상이 많이 인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명군(明君)과 명신(名臣)이 만났기에

우리나라 북변의 안정을 이루었고 공께서 직필사가이셨기에 “고려사” 등 사서의 개관과 찬술을 주관하셨으며 조정의 대노(大盧)라 이르렀기에 수양대군에게 제일먼저 희생 되셨지요. 당시 성균관 생원들은 공을 “태산(泰山) 북두(北斗)와 같이 섬긴다”하였고 많은현신(賢臣), 현사(賢士)들의 공을 찬양한 논술의 글들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 진면모를 바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이 읽어서 공을 흠모하고 숭앙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총무부장 김 범 재 배상

節齋先生實紀

〈朝鮮王朝實錄拔萃〉

順天金氏中央宗親會

김춘희 상임부회장 장남 김종철(金重鐵)종원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 논문 :

Geotechnical Engineering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he Mixed Soil Containing Waste Stone Sludge(석분슬러지 혼합토의 지반공학특성 및 활용)

▶ 학 력 :

1993년 02월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공학사)
2000년 0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설공학과(지반공학전공) 졸업(석사)

2011년 08월 대전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지반공학전공) 졸업(박사)

▶ 경 력 :

1993.02.01 ~ 1997.10.31 전주토건(주) 과장
1997.11.01 ~ 2000.05.31 (주)서신엔지니어링 실장
2000.06.01 ~ 2003.02.28 (주)무진네오테크 이사
2003.03.01 ~ 현재 (주)무진이엔씨 대표이사
2008.03.01 ~ 현재 대전대학교 시간강사

근 무 처 : 주식회사 무진이엔씨
회사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70-5 우림e-BIZ센터 1차 206호
대표전화 : 02)2108-2626 FAX) 02)2108-2090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11년 5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회 장

- 1. 김행엽 2011. 5.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 회 장

- 1. 김경렬 2011. 5. 4 경기도 고양시
- 2. 김석연 2011. 5. 30 경기도 안산시
- 3. 김경렬 2011. 6. 10 경기도 고양시
- 4. 김종락 2011. 6. 20 경기도 이천시
- 5. 김경렬 2011. 7. 11 경기도 고양시
- 6. 김경렬 2011. 8. 10 경기도 고양시
- 7. 김경렬 2011. 9. 9 경기도 고양시

고 문

- 1. 김동석 2011. 5. 3 경상북도 문경시
- 2. 김대영 2011. 5. 30 경상북도 문경시
- 3. 김채원 2011. 6. 22 경기도 남양주시
- 4. 김학원 2011. 8. 24 경기도 고양시

총 무

- 1. 김범재 2011. 6. 30 경기도 이천시

이 사

- 1. 김태수 2011. 6. 17 전라남도 전주시
- 2. 김병준 2011. 8. 25 경상북도 문경시
- 3. 김기원 2011. 9. 20 충청남도 공주시

회 원

- 1. 김동철 2011. 4. 29 대구광역시 북구
- 2. 김정록 2011. 5.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 3. 김종일 2011. 5. 23 경상북도 예천군
- 4. 김인흠 2011. 5. 24 경상북도 영주시
- 5. 김성희 2011. 5.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 6. 김현만 2011. 5.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 7. 김동호 2011. 6. 7 충청북도 보은군
- 8. 김두연 2011. 6. 8 경상북도 상주시
- 9. 김실권 2011. 6. 8 강원도 인제군
- 10. 김준연 2011. 6. 9 경기도 용인시
- 11. 김영두 2011. 6. 9 경기도 부천시
- 12. 김기연 2011. 6. 9 충청북도 청주시
- 13. 김동경 2011. 6. 10 인천광역시 동구
- 14. 김동석 2011. 6. 10 경상남도 성주군
- 15. 김동웅 2011. 6. 10 경상북도 경산시
- 16. 김동구 2011. 6. 10 경기도 고양시
- 17. 김동수 2011. 6. 10 대구광역시 북구
- 18. 김지일 2011. 6. 10 경기도 안산시
- 19. 김남술 2011. 6. 13 전라남도 해남군
- 20. 김장환 2011. 6. 13 경상북도 의성군
- 21. 김흥재 2011. 6. 13 경기도 이천시
- 22. 김영학(한학) 2011. 6. 13 경기도 용인시
- 23. 김규장 2011. 6.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 24. 김영락(낙) 2011. 6. 13 울산광역시 남구
- 25. 김광도 2011. 6. 13 강원도 양구군
- 26. 김주운 2011. 6.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 27. 김호윤 2011. 6. 14 울산광역시 북구
- 28. 김인선 2011. 6. 13 경기도 고양시
- 29. 김동준 2011. 6. 15 전라북도 임실군
- 30. 김 명 2011. 6. 15 경기도 양주시
- 31. 김천환 2011. 6. 15 대구광역시 북구
- 32. 김용욱 2011. 6. 15 전라북도 완주시
- 33. 김남식 2011. 6. 17 전라남도 고흥군
- 34. 김태수 2011. 6. 17 전라남도 전주시
- 35. 김상묵 2011. 6. 20 전라남도 해남군
- 36. 김상철 2011. 6. 20 경기도 고양시
- 37. 김상울 2011. 6.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 38. 김진추 2011. 6. 21 전라남도 광주시
- 39. 김상열 2011. 6. 21 경상남도 김해시
- 40. 김동일 2011. 6. 21 경기도 시흥시
- 41. 김동일 2011. 6. 21 전라남도 순천시
- 42. 김성희 2011. 6. 21 경기도 파주시
- 43. 김방헌 2011. 6. 21 경상북도 안동시
- 44. 김상호 2011. 6. 22 경상북도 포항시
- 45. 김외학 2011. 6. 22 대구광역시 동구
- 46. 김동삼 2011. 6. 22 경기도 하남시
- 47. 김동석 2011. 6. 24 경기도 김포시
- 48. 김윤일 2011. 6.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 49. 김장희 2011. 6. 24 전라북도 전주시
- 50. 김종하 2011. 6.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 51. 김춘연 2011. 6. 27 경기도 양주시
- 52. 김인숙 2011. 6. 27 경기도 고양시
- 53. 김동현 2011. 6. 27 경기도 시흥시
- 54. 김종근 2011. 6.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 55. 김학이 2011. 6. 28 경상북도 의성군
- 56. 김태웅 2011. 6.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 57. 김완선 2011. 6. 30 경기도 고양시
- 58. 김영수 2011. 6.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 59. 김찬정 2011. 7. 11 경기도 고양시
- 60. 김상심 2011. 7. 13 경기도 고양시
- 61. 김상욱 2011. 7. 15 경기도 고양시
- 62. 김동준 2011. 7. 20 경기도 하남시
- 63. 김병남 2011. 7. 21 경기도 김포시
- 64. 김수영 2011. 7. 25 경기도 수원시
- 65. 김동한 2011. 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 66. 김공남 2011. 7.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 67. 김병두 2011. 7. 28 경기도 상주시
- 68. 김상은 2011. 8.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 69. 김동한 2011. 8. 19 경기도 안산시
- 70. 김중식 2011. 8. 23 경기도 남양주시
- 71. 김진웅 2011. 8. 25 대전광역시 서구
- 72. 김해동 2011. 9. 8 서울특별시 관악구
- 73. 김휘천 2011. 9. 14 경기도 수원시

- 74. 김성환 2011. 9. 15 경상남도 창원시
- 75. 김동연 2011. 9. 15 경기도 고양시
- 76. 김광석 2011. 9. 20 전라남도 무안군
- 77. 김상하 2011. 9. 21 경기도 평택시

무 명 인

- 1. 2011년 5월 27일 수원화서/우체국
- 2. 2011년 6월 8일 농협/용인축산백암
- 3. 2011년 6월 9일 농협중앙회
- 4. 2011년 6월 13일 국민은행/삼척지점
- 5. 2011년 6월 13일 국민은행/구월복지점
- 6. 2011년 6월 13일 우리은행/서수현지점
- 7. 2011년 6월 14일 황산농협
- 8. 2011년 6월 14일 농협/중음산상방지점
- 9. 2011년 6월 14일 전북봉동지점
- 10. 2011년 6월 17일 농협/봉화농협
- 11. 2011년 6월 20일 농협/금촌농협
- 12. 2011년 6월 21일 농협중앙회/순창군지부
- 13. 2011년 6월 27일 국민은행/중곡서
- 14. 2011년 6월 27일 규암농협/농협
- 15. 2011년 6월 27일 농협/군자농협
- 16. 2011년 6월 27일 새마을금고/부평지점
- 17. 2011년 7월 5일 농협/남원용지점

회관건립 후원금 회관건립 헌성금비건립

(50만원이상)

- 1. 김행엽 10,000,000
- 2. 김춘희 3,000,000
- 3. 김춘형 2,000,000
- 4. 김동근 30,000
- 5. 김영규 130,000
- 6. 김동철 100,000
- 7. 김형욱 100,000
- 8. 김동경 30,000
- 9. 김상응 100,000
- 10. 김영환 10,000
- 11. 김명재 200,000
- 12. 김우영 50,000

회비 납부시 지로용지에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오니 꼭 기재 바랍니다.



태양의 미소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그속에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 언제나 활짝-
그웃는 얼굴을 보면, 내일의 에너지가 보입니다
한화가 태양광에너지로 내일을 준비합니다